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3. 14.(목) 11:00,
(지면) 2024. 3. 15.(금) 조간

배포 2024. 3. 14.(목) 06:00

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!

-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위해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
-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(토)부터 3월 22일(금)까지 7일간 「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」를 개최한다.

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*해 주는 행사이다.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* 구매금액 3.4만 원~6.7만 원 미만 → 1만 원 환급 / 6.7만 원 이상 → 2만 원 환급

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,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~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.

이 외에도,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‘오징어·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(2. 22.~)’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, 마트·온라인몰 최대 50%(정부 20%)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.8%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이다.”라며, “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~4월 두 달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하고, 수급 불안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44-200-5440)
	유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정재훈 (044-200-5447)

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월 행사 참여시장

